

# 보도자료

세계평화포럼 「세계평화지수 2017」 보고서

2018년 2월

세계평화포럼



## 요약문

- 세계평화포럼이 2018년 2월 제16차 보고서 세계평화지수 2017을 발표했다.
- 세계평화포럼에서는 2016년까지는 143개국을 대상으로 지수를 산정하다가 2017년에는 52국을 추가한 195개국을 대상으로 지수를 산출하였다. 143개국 기준 지수는 2014년 69.6점, 2015년 67.4점, 2016년 66.9점에 이어, 2017년에는 66.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평화포럼이 지수 산출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195개국 기준 지수는 2017년에 68.0이다. 새로 추가된 52개국에 평화로운 소국들이 다수 포함된 탓이다.
- ‘세계평화지수 2017’에서는 덴마크가 평화지수 90.8점으로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로 나타났다. 남수단은 평화지수 20.2점으로 가장 평화가 취약한 국가로 측정되었다.
- 세계평화지수 2017에서는 평화지수 점수 80점 이상은 1등급, 70점대를 2등급, 60점대는 3등급, 50점대는 4등급, 50점 미만을 5등급으로 나누는 설명 구조를 채택했다.
- 1등급은 덴마크, 독일 등 유럽국가와 캐나다, 그리고 호주, 일본, 대만 등 아시아·태평양 나라들을 비롯한 42국으로 구성된다.
- 2등급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 그리고 영국,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 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나라들을 포함하는 55나라로 구성된다.
- 3등급은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나라들,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중동 국가들, 브라질, 베네수엘라, 멕시코 등 중남미 나라들,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부르키나파소 등 아프리카 나라들을 포함하는 45나라로 구성된다.
- 4등급은 러시아, 그리고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북한 등 아시아 나라들, 터키, 이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알제리, 이집트 등 중동 국가들, 케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라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나라들을 포함한 36나라로 구성된다.
- 5등급은 남수단, 수단,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나라들과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이라크 등 중동 나라들을 포함하는 17개국으로 구성된다.

- 대국의 평화역설: 미국 83위, 중국 141위, 러시아 176위, 인도 154위, 브라질 125위
- 미국은 ‘세계평화지수 2017’에서 72.0점으로 83위, 평화지수 2등급 국가에 포함되었다.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이 평화지수 면에서 상위집단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 중국은 ‘세계평화지수 2017’에서 평화지수 61.2점으로 평화지수 3등급에 해당하며, 순위는 141위이다.
- 러시아는 ‘세계평화지수 2017’에서 평화지수 50.6점으로 평화지수 4등급에 해당하며, 순위는 176위이다.
- 인도는 ‘세계평화지수 2017’에서 56.1점으로 평화지수 4등급에 속하며, 순위는 154위이다.
- 브라질은 ‘세계평화지수 2017’에서 평화지수 65.8로 평화지수 3등급에 속하며 순위는 125위로 평화지수 중위국에 속한다.
- 유럽의 평화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만, 유럽 강대국 중에서 평화지수 1등급인 독일(2위)과 이탈리아(31위)를 제외하면, 영국(56위), 프랑스(59위), 스페인(62위) 등은 평화지수 2등급에 속한다. 이들 나라가 유럽 중심국이기는 하지만, 평화수준에서 세계를 선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 남북한 평화 수준 격차: 한국 70위, 북한 163위
- ‘세계평화지수 2017’에서 한국은 평화지수 75.3으로 평화지수 2등급에 속하며 순위는 70위이고, 북한은 54.8점으로 평화지수 4등급 163위이다.
- 과거와의 지수 비교를 위해 143개국만을 추려서 살펴보면, 한국은 2015년 51위, 2016년 52위에서 2017년 46위로 상승하였고, 북한은 2015년 114위, 2016년 114위에서 2017년 116위로 하락하였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보다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만큼 평화수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평화구조가 개선되지 못하면 한국의 평화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 연구참여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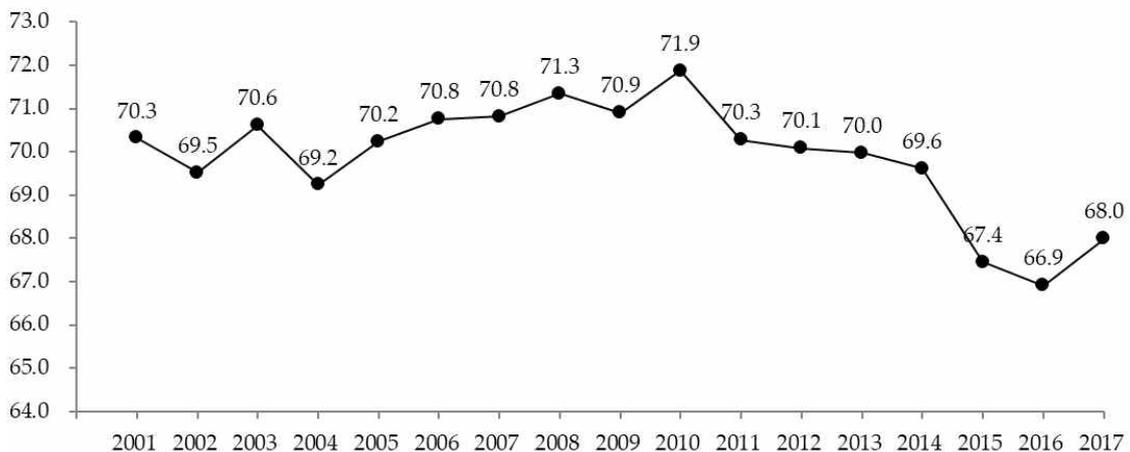
- 설동훈 교수 dhseol@gmail.com 010-8931-3022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김병조 교수 bjkk2181@daum.net 010-5084-2181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
- 이상현 박사 shlee@sejong.org 010-6522-8788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세계평화포럼 「세계평화지수 2017」 보고서 보도자료

세계평화포럼(이사장 김진현 전 과학기술부장관)에서 제16차 보고서로 『세계 평화지수(World Peace Index: WPI) 2017』을 발간하였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가장 과학적이고 종합적이며 유일한 세계지수인 세계평화지수는 2000년에 ‘세계 평화문화지수’로 처음 세상에 나왔고 2001년도부터는 ‘세계평화지수’로 명칭을 바꿨다. 2018년 2월, 세계평화포럼은 서울에서 통계 수집이 가능한 세계 195개국의 2016년 평화상태를 국내정치, 군사·외교, 사회·경제 부문을 종합 분석·평가한 2017년 1월 1일 기준 세계평화지수를 발표하였다.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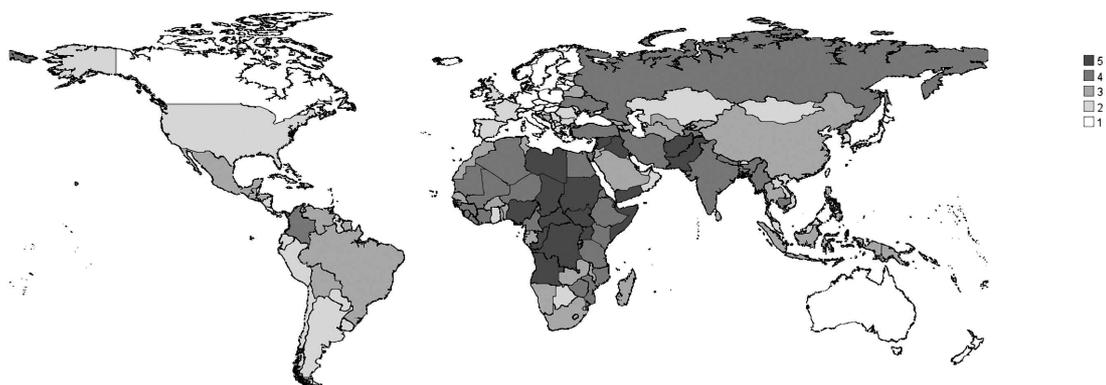
2017년 1월 1일 0시를 기준 시점으로 하여 지난 1년간의 세계 평화 상태를 측정해 본 결과 2017년의 세계평화지수는 68.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정치 영역 70.4점, 군사·외교 영역 71.2점, 사회·경제 영역 62.3점의 평균치다. 2017년 세계평화지수는 역대 최저 평화수준을 나타냈던 2016년 66.9점보다는 1.1점 높아졌다. 2017년 분석에 추가된 52개국의 평화지수가 매우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표 1 참조), 세계평화수준이 개선된 결과로 그대로 해석하기 곤란하다. 143개국만을 대상으로 세계평화지수를 산출하면 2017년의 점수는 66.9점으로 2016년과 동일하다. 결국 2016년 1년 동안 세계평화수준은 별로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림 1] 세계평화지수 2001~2017년

[그림 1]은 세계평화지수 측정이 가능했던 지난 17년간의 추이를 보여준다. 미국의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를 당하고 곧이어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이 벌어진 2000년대 초반 세계평화수준이 악화되다가, 이후 점차적으로 세계평화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10년 정점을 찍은 이후 다시 급격히 하강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2008년 후반 미국에서 발생한 국제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협한 것과 함께 이슬람권 국가들에서 전개된 정치적 혼란과 군사적 갈등이 주요인이었다. 그런데 2014년을 고비로 다시 세계평화지수가 급락한다. 전반적으로 각국의 국내정치상황은 크게 악화되지 않았으나, 군사·외교적으로 이슬람국가(IS)가 주도하는 테러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러시아, 중국 등 냉전시대 군사강국의 군사적 개입을 적극화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세계 경제의 침체와 불평등의 확산 등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다. 세계평화의 수준이 계속 낮아진다는 것은 인류에게 불안과 위험 요인이 함께 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알려주는 ‘세계평화지수’ 작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표 1>은 ‘세계평화지수 2017’에서 평화지수를 산출한 195개 국가의 점수와 그 동안의 변동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2]는 각 나라별 2017년의 세계평화지수 등급을 지도에 나타낸 것이다. 평화지수 점수 80점 이상은 1등급, 70점대를 2등급, 60점대는 3등급, 50점대는 4등급, 50점 미만은 5등급으로 나누는 설명 구조를 채택했다.



[그림 2] 세계평화지수 2017 등급별 분포

<표 1> 세계평화지수 2001~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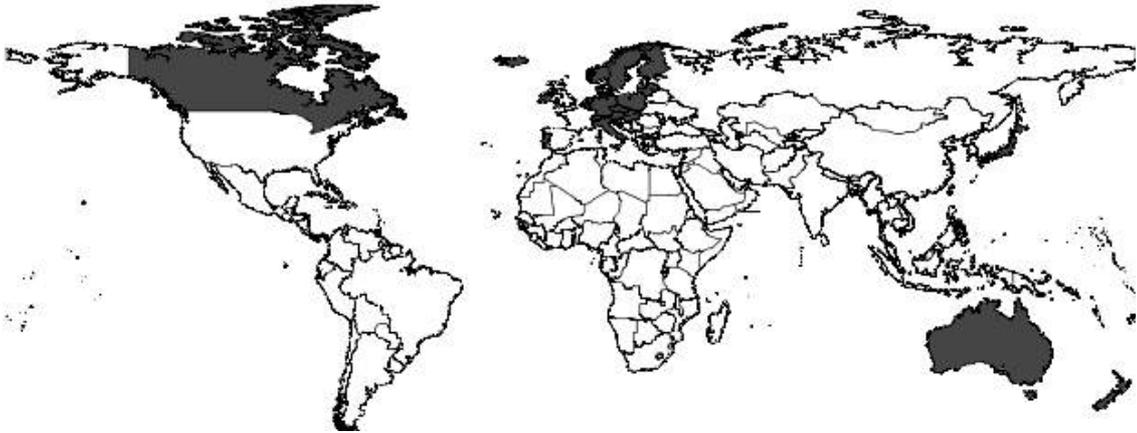
등급	국가	WPI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1등급 (매우 높음)	덴마크	90.8	88.6	88.0	90.9	87.4	89.9	89.3	90.4	93.5	88.0	87.9	90.5	90.5	85.0	90.6	87.4	92.8
	독일	89.9	90.0	89.6	92.6	92.1	88.9	84.6	87.4	87.3	81.5	87.2	90.7	92.9	86.6	86.6	86.2	89.2
	리히텐슈타인	89.9																
	캐나다	89.2	89.2	89.4	89.6	86.3	88.8	87.9	85.7	85.8	86.0	85.8	88.5	88.4	91.2	88.9	88.5	88.6
	아일랜드	89.0	88.8	88.1	87.9	84.9	84.7	87.0	89.8	90.1	90.1	90.2	87.9	90.0	89.7	89.4	80.6	88.0
	노르웨이	88.9	90.1	85.6	88.9	85.4	85.4	87.1	92.2	92.2	86.6	92.0	91.9	91.9	89.3	92.0	91.7	88.7
	뉴질랜드	88.7	89.0	88.4	86.2	88.2	82.8	85.7	88.3	91.4	85.9	88.8	91.4	88.3	88.1	85.3	90.0	90.3
	오스트리아	88.5	88.7	88.5	88.8	91.1	90.9	89.7	89.6	92.0	92.3	87.0	93.6	92.4	86.8	86.5	86.8	88.4
	모나코	88.3																
	아이슬란드	88.3	88.3	89.5	89.7	89.7	90.9	86.7	90.1	81.9	93.2	93.4	93.4	93.0	93.4	93.1	87.5	93.0
	룩셈부르크	88.1	88.5	86.9	87.0	86.6	86.9	86.0	89.8	89.8	90.0	90.0	89.8	90.1	87.4	90.5	90.4	90.4
	몰타	87.3	87.6	87.1	87.4	87.3	87.1	86.6	88.8	85.8	88.8	88.8	88.3	88.4	86.3	89.2	89.2	89.4
	산마리노	87.2																
	안도라	87.1																
	핀란드	87.1	87.4	87.2	87.4	87.0	87.4	85.7	89.4	87.0	83.8	89.4	87.7	86.5	83.5	86.3	89.1	87.9
	스위스	86.2	86.2	88.9	91.8	88.5	90.9	89.5	93.3	93.4	93.4	93.9	93.2	93.3	87.5	87.9	87.1	88.3
	슬로베니아	86.0	86.0	88.0	86.8	84.0	86.1	85.2	91.0	85.3	90.9	90.7	87.6	90.2	83.9	89.1	88.6	89.2
	스웨덴	85.8	86.5	88.9	89.4	91.4	91.5	90.0	93.5	93.4	93.1	93.3	90.2	93.2	87.7	87.7	89.6	92.2
	폴란드	85.6	85.4	87.5	84.8	84.2	83.8	83.2	85.0	87.1	77.6	77.3	79.7	84.7	73.2	81.5	73.8	85.3
	네덜란드	85.3	88.4	87.7	91.1	90.7	88.0	89.8	92.6	91.9	86.5	92.4	88.7	92.5	89.7	92.5	86.6	91.9
	오스트레일리아	84.6	85.2	82.6	85.9	87.8	84.7	84.2	87.5	90.3	87.7	90.4	87.7	79.0	76.4	83.1	87.1	84.3
	일본	84.3	83.8	84.9	85.1	81.7	84.6	85.8	85.0	82.0	82.0	82.0	84.5	87.0	81.8	87.5	84.8	89.7
	헝가리	84.0	87.5	86.4	83.6	81.0	77.6	83.1	82.5	88.5	83.2	83.1	86.0	84.9	76.2	81.7	81.4	81.1
	슬로바키아	83.9	83.6	82.9	84.2	86.8	83.3	83.8	85.1	87.6	86.9	83.6	86.0	85.7	79.5	82.3	82.6	86.7
	벨기에	83.2	85.8	85.4	88.3	85.2	85.2	86.7	81.5	84.3	87.0	87.2	89.9	90.3	84.6	89.6	86.4	88.6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83.0																
	체코	82.9	83.1	82.0	85.9	85.9	86.0	84.4	83.8	86.5	88.9	83.0	84.5	87.1	81.1	83.5	86.9	84.1
	세인트 키츠 네비스	82.4																
	세인트루시아	82.1																
	싱가포르	82.0	79.0	78.5	78.5	80.1	79.9	78.1	81.4	81.4	81.5	80.9	80.4	80.2	74.8	77.5	79.7	80.4
	이탈리아	82.0	82.1	81.7	81.9	81.6	79.4	83.7	86.6	86.6	81.9	81.5	86.9	83.6	80.5	86.0	83.0	85.0
	팔라우	82.0																
	포르투갈	81.9	79.0	77.9	78.5	78.5	78.5	80.3	84.2	86.9	87.2	84.6	81.4	86.9	81.7	87.2	84.0	86.3
	모리셔스	81.7	81.0	81.5	81.6	81.1	81.4	81.2	84.6	84.0	83.6	83.9	82.7	82.9	82.9	82.8	82.1	82.6
	리투아니아	81.3	80.4	81.4	79.8	81.4	80.0	80.1	83.4	83.5	83.1	82.7	78.8	74.4	76.6	80.4	79.8	82.0
	앤티가 바부다	80.6																
	마셜 제도	80.5																
	도미니카 연방	80.5																
	바베이도스	80.3																
	바하마	80.2	81.5	82.2	84.6	84.4	85.5	83.7	85.2	78.8	81.5	84.1	84.5	81.3	83.6	83.8	83.7	83.7
	대만	80.2	80.6	79.5	76.7	79.2	81.7	81.2	82.5	76.9	82.8	80.0	77.9	79.0	75.4	75.5	77.8	72.9
라트비아	80.0	80.4	80.2	80.6	79.8	78.7	78.4	76.9	80.3	79.9	82.8	79.2	80.9	81.1	81.1	80.1	80.3	
2등급 (높음)	미크로네시아 연방	79.6																
	칠레	79.5	79.9	78.2	78.7	80.9	75.3	77.3	75.8	81.3	78.6	81.1	84.5	83.0	79.8	79.5	79.7	83.6
	투발루	79.5																
	키리바시	79.5																
	크로아티아	79.4	76.7	78.3	77.4	74.5	79.7	79.4	81.2	81.0	80.7	74.6	79.6	78.0	74.8	75.2	72.4	73.4
	바누아투	79.3																
	그레나다	79.2																
	코스타리카	78.5	77.2	75.0	78.3	81.2	80.0	81.5	81.3	86.7	86.2	80.2	80.0	86.0	85.6	85.3	82.4	79.2
	파나마	78.3	78.8	78.5	78.6	76.3	78.9	76.2	83.4	77.6	76.7	81.8	78.8	78.6	75.9	81.5	81.3	80.6
	우루과이	78.2	78.7	82.5	83.7	83.3	82.9	83.0	79.3	84.3	81.3	83.3	79.8	82.7	82.9	83.0	82.6	83.0
	사모아	78.2																
	루마니아	78.2	77.8	80.0	77.7	74.1	75.4	76.1	78.4	81.4	75.8	77.7	75.7	69.9	66.6	77.4	71.9	74.0
	통가	77.5																
	영국	77.2	79.5	78.5	82.1	80.6	77.9	80.2	79.7	85.1	85.4	88.1	85.8	82.0	76.5	81.7	78.6	78.6
	에스토니아	77.2	77.7	76.3	80.5	82.4	81.3	81.0	85.6	85.8	82.9	85.1	78.9	83.7	82.6	82.8	80.9	83.5
	말레이시아	77.2	75.9	77.9	75.2	74.3	73.8	76.6	72.1	77.6	71.5	74.1	73.9	71.6	70.0	75.0	72.4	67.3
	프랑스	77.0	77.9	77.3	81.7	81.3	80.6	82.8	83.1	80.2	77.9	77.8	77.6	80.0	80.2	79.7	82.2	78.7
	몬테네그로	77.0																
	세이셸	76.9																
	스페인	76.6	76.6	78.9	79.8	79.7	79.3	81.7	80.1	74.7	83.7	83.3	88.9	71.9	68.6	79.0	84.2	81.6
	벨리즈	76.6																
	카보베르데	76.6																
	브루나이	76.6																
	불가리아	76.5	77.0	76.2	79.2	79.0	80.1	78.3	83.4	80.2	80.3	82.6	81.5	71.4	73.5	75.3	75.2	77.9
	몽골	76.4	75.2	73.4	75.6	76.2	72.5	78.4	80.2	75.1	78.6	72.4	75.1	78.9	74.4	77.6	72.6	71.4
	알바니아	76.0	73.0	75.4	76.7	79.3	79.0	77.6	79.8	74.7	75.2	79.6	79.6	75.8	74.7	74.6	75.5	75.0

등급	국가	WPI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등급 (높음)	카타르	75.9	76.0	76.7	77.5	76.8	73.2	74.5	78.0	73.8	75.5	71.5	69.9	69.2	69.1	65.3	73.4			
	한국	75.3	72.7	72.9	76.2	78.5	77.6	72.4	76.5	70.8	74.2	77.0	76.3	78.2	77.7	72.6	74.8	72.5		
	카자흐스탄	75.0	77.7	75.7	73.6	72.7	71.9	74.8	79.5	79.2	78.9	74.6	74.2	77.1	71.8	71.4	70.9	77.9		
	나우루	75.0																		
	세르비아	74.6																		
	부탄	74.6																		
	키프로스	74.6																		
	아르헨티나	74.1	73.9	71.1	73.7	76.1	75.7	78.5	75.8	72.4	72.5	76.8	68.1	76.2	74.0	73.4	67.7	73.5		
	가이아나	73.6																		
	피지	73.4	74.3	72.6	74.8	71.3	76.6	71.5	78.9	73.6	80.6	77.5	81.2	80.2	79.9	80.2	80.0	82.4		
	몰디브	73.2																		
	오만	73.1	74.3	73.9	75.5	74.6	71.8	75.8	74.8	73.7	73.6	76.6	76.3	71.9	73.8	70.6	65.4	73.9		
	에콰도르	72.6	76.0	76.4	76.5	76.2	66.7	71.5	68.5	68.3	73.8	73.9	72.6	74.7	68.5	68.1	71.3	76.2		
	자메이카	72.1	73.4	74.0	75.8	78.7	78.0	75.4	80.9	75.5	74.8	80.6	75.7	77.7	80.7	77.3	74.3	75.1		
	미국	72.0	72.2	69.2	69.6	71.1	70.8	70.5	80.1	78.7	79.1	78.8	78.8	75.8	70.9	76.2	79.7	82.4		
	마케도니아	71.9																		
	아랍에미리트	71.7	72.4	72.8	76.5	75.5	72.1	71.5	77.2	73.7	78.5	75.7	73.0	74.5	70.4	72.4	66.4	72.6		
	그리스	71.6	71.9	71.1	71.0	69.8	68.1	67.7	71.8	75.1	78.3	80.5	76.7	78.6	78.5	78.5	78.5	76.1		
	베트남	71.5	64.4	64.4	67.8	65.9	69.0	67.0	63.6	63.1	60.8	63.0	57.8	57.9	64.2	63.3	53.7	67.7		
	보츠와나	71.3	68.9	69.1	75.8	74.6	73.6	73.1	70.2	71.8	68.9	68.7	64.7	72.2	72.6	72.5	73.3	69.6		
	라오스	71.1	69.3	69.8	67.6	66.1	67.8	69.0	68.1	71.0	70.6	69.8	66.4	67.8	65.4	68.0	62.6	61.0		
	몰도바	70.9	69.5	69.7	79.4	75.9	73.5	76.9	73.7	79.0	72.4	75.0	77.1	75.5	67.0	75.3	75.6	65.3		
	가나	70.9	72.4	70.2	73.9	72.9	73.9	74.5	75.6	76.0	73.6	73.2	75.8	77.5	76.7	76.0	70.2	75.6		
	페루	70.9	68.4	68.9	69.0	71.0	71.0	70.2	61.0	69.0	68.3	70.8	59.2	67.3	65.0	62.4	70.6	60.9		
	니카라과	70.9	71.3	61.0	64.1	68.2	64.6	69.9	67.7	68.1	68.3	62.7	68.0	69.4	69.7	66.3	64.5	56.8		
	쿠웨이트	70.8	71.2	72.1	74.5	72.6	70.5	72.2	79.4	74.8	79.4	78.8	77.1	77.1	68.8	71.6	77.3	78.4		
	파라과이	70.3	67.0	65.2	65.1	69.5	75.1	72.6	78.2	77.9	77.7	77.9	71.7	76.8	77.1	70.4	76.1	64.7		
	트리니다드 토바고	70.2	71.6	72.5	73.7	78.9	73.7	79.3	82.6	82.6	82.2	80.1	79.9	79.7	79.3	80.0	79.4	80.3		
	쿠바	70.2	70.8	75.2	70.8	72.9	71.2	70.1	77.1	77.3	68.6	73.8	68.8	70.8	73.9	73.9	66.5	75.1		
	3등급 (중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69.8																	
		나미비아	69.6	69.4	68.6	72.2	71.8	71.0	70.9	74.9	73.5	74.4	73.1	73.3	71.9	72.2	69.8	69.5	74.7	
		멕시코	69.5	69.0	70.0	70.3	70.4	75.1	77.8	75.6	75.8	67.5	67.3	81.3	83.5	80.4	74.4	82.6	70.5	
		엘살바도르	69.3	72.2	72.4	72.4	72.2	69.2	72.2	71.2	74.9	76.7	73.7	70.6	73.2	75.4	75.0	68.9	75.4	
		세네갈	69.2	65.5	64.7	64.8	63.3	71.6	70.4	72.4	67.6	70.6	72.8	72.7	72.3	72.3	68.8	71.4	70.5	
상투메 프린시페		69.2																		
볼리비아		69.0	71.6	69.3	72.5	69.1	69.1	73.1	65.6	71.2	68.1	70.9	70.8	76.5	68.4	80.0	70.4	71.4		
인도네시아		68.9	68.7	67.2	67.4	66.2	65.4	62.3	60.9	60.8	65.5	65.4	59.3	55.5	56.1	57.1	57.0	57.6		
벨라루스		68.7	68.1	70.9	74.4	68.2	66.8	74.0	78.5	73.1	69.7	69.3	74.7	75.6	71.6	77.8	76.6	79.2		
투르크메니스탄		68.5																		
키르기스스탄		68.0	70.6	71.8	73.8	71.0	72.8	74.9	73.8	74.2	75.7	69.7	67.6	71.8	71.3	70.3	67.2	70.6		
베냉		67.9																		
동티모르		67.9																		
코모로		67.9																		
토고		67.8	65.7	68.2	68.9	68.7	71.4	67.7	71.9	71.5	69.0	71.2	66.0	70.8	71.1	71.1	71.2	63.0		
조지아		67.6	67.9	65.3	63.8	63.6	64.6	63.5	66.5	53.5	63.9	58.8	64.0	66.0	68.6	63.2	60.4	64.6		
모로코		67.4	65.4	62.3	68.0	67.5	63.8	64.6	65.2	65.4	68.4	65.1	67.5	61.4	63.4	63.2	59.6	63.7		
튀니지		67.3	67.9	71.4	70.9	73.1	76.0	76.4	76.0	76.1	76.2	76.4	76.2	76.1	73.2	75.7	72.9	70.3		
수리남		67.1																		
파푸아뉴기니		66.7	66.3	67.2	69.3	67.6	73.7	73.8	70.7	73.0	67.9	67.9	67.9	73.0	71.0	71.0	73.8	74.0		
태국		66.6	68.4	68.8	70.1	66.6	68.6	65.4	67.9	72.9	70.4	67.5	67.9	68.1	68.3	73.4	66.9	69.8		
도미니카공화국		66.5	65.8	69.1	68.4	69.1	71.2	66.3	74.5	70.7	71.7	67.9	71.0	70.9	62.8	72.8	68.0	73.3		
사우디아라비아		66.5	66.3	69.3	75.7	70.5	73.6	73.7	69.1	71.5	71.8	65.9	65.5	67.8	59.7	70.8	71.2	75.8		
남아프리카공화국		66.3	68.3	69.9	70.3	72.4	74.7	75.4	76.7	76.4	74.0	75.3	75.4	75.5	70.1	76.5	76.7	74.2		
온두라스		66.2	65.5	66.8	67.2	69.3	69.1	75.7	76.6	71.2	76.6	75.8	75.1	68.9	68.3	76.1	67.8	76.5		
말라위		66.1	62.6	64.6	68.7	64.9	68.6	66.5	73.1	68.4	71.2	69.8	69.3	63.5	60.7	64.3	69.2	70.6		
가봉		66.0	67.8	69.6	70.3	72.3	71.7	71.0	69.1	74.6	74.7	72.7	70.0	72.9	69.9	69.7	72.3	71.6		
브라질		65.8	66.9	68.1	69.0	68.0	70.2	72.2	76.4	76.1	76.0	75.6	72.7	75.5	69.5	69.0	63.3	71.5		
적도 기니		65.6																		
솔로몬 제도		65.3																		
아르메니아		64.4	62.5	64.9	67.0	62.5	65.1	64.8	68.8	63.2	72.3	66.1	62.5	70.1	71.0	70.7	67.7	68.6		
스리랑카		63.9	67.1	61.0	67.0	68.8	67.0	67.0	51.2	52.0	58.1	56.0	55.5	60.9	61.5	69.0	57.6	55.8		
베네수엘라		63.4	63.8	66.2	72.1	73.9	72.1	72.9	76.6	76.7	72.4	75.1	68.9	65.9	74.4	74.5	69.3	69.5		
스와질란드		63.4																		
요르단	63.2	65.2	64.7	62.3	63.0	60.0	59.5	64.7	65.3	69.0	63.2	62.5	62.3	64.5	64.3	62.3	66.9			
우즈베키스탄	62.8	61.6	62.0	66.8	66.2	68.5	65.8	72.0	70.9	67.7	71.0	63.0	59.9	72.7	71.2	63.4	72.2			
과테말라	62.2	61.7	62.6	62.8	62.0	61.9	62.0	64.8	61.8	58.6	63.7	63.4	68.9	62.9	67.8	62.3	62.0			
레소토	62.2																			
마다가스카르	62.1	65.2	66.2	66.9	64.5	70.0	66.6	70.3	76.6	75.6	69.8	74.8	71.5	73.7	68.4	72.8	68.1			
아제르바이잔	62.0	63.1	66.0	67.5	66.0	68.6	67.6	70.5	67.3	67.5	68.1	66.4	65.9	66.9	64.2	66.8	59.5			
부르키나파소	61.9	62.2	61.1	64.5	61.2	64.0	68.6	72.4	69.4	72.7	70.0	69.6	69.9	72.4	71.9	69.4	71.6			
필리핀	61.5	63.6	64.6	61.9	61.0	59.5	61.8	53.3	56.3	61.9	63.9	63.9	55.9	55.5	55.8	58.4	59.2			

등급	국가	WPI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3등급 (중간)	잠비아	61.4	60.2	67.7	69.8	65.9	66.6	68.0	70.6	68.8	64.8	59.5	64.8	64.1	66.5	66.6	63.5			
	중국	61.2	58.1	61.0	62.8	61.4	61.7	63.6	62.7	62.9	62.7	62.6	64.2	66.6	66.4	66.4	68.7	64.6		
	바레인	61.0	63.7	63.8	65.5	69.3	68.9	74.0	75.5	75.8	74.9	71.1	73.5	74.5	74.7	71.7	72.4			
4등급 (낮음)	터키	59.4	57.2	64.1	61.9	68.3	60.8	66.6	71.9	57.9	54.2	56.6	69.2	62.4	53.6	59.9	61.7	59.3		
	르완다	59.2	56.1	54.5	56.0	55.2	55.2	51.8	54.3	50.1	55.7	58.6	59.0	52.8	52.3	56.5	56.3	44.2		
	탄자니아	59.2	59.1	62.6	64.1	67.4	64.1	66.4	69.9	69.4	68.2	58.9	58.8	63.6	66.8	64.6	61.5	67.7		
	콜롬비아	59.0	59.5	61.8	60.3	63.1	54.1	55.7	64.1	58.6	49.1	59.5	53.8	66.3	61.0	49.8	58.9	59.0		
	이스라엘	59.0	56.0	58.9	60.2	62.7	64.7	54.6	62.1	65.1	70.4	59.1	69.3	60.7	64.0	66.5	69.6	66.1		
	아이티	58.5																		
	방글라데시	58.5	54.4	58.6	63.4	61.7	67.6	67.4	61.3	64.0	66.0	60.3	54.5	57.3	59.8	59.8	53.7	65.1		
	네팔	57.5	56.4	60.5	64.1	62.8	60.4	58.1	60.9	53.7	56.8	53.9	50.5	49.2	52.4	49.6	52.9	60.8		
	모리타니	57.2	57.8	59.8	59.7	60.1	62.3	59.5	67.4	62.3	68.4	61.6	58.1	50.5	58.9	64.3	64.2	59.6		
	라이베리아	57.0																		
	타지키스탄	56.7	57.4	61.0	59.7	67.9	68.6	63.1	69.7	69.2	64.0	69.3	60.8	68.1	68.5	65.3	60.6	65.7		
	인도	56.1	55.2	55.5	56.3	58.7	58.5	55.3	66.4	50.1	50.2	53.0	61.2	60.8	57.6	54.5	46.1	55.2		
	팔레스타인	55.8																		
	카메룬	55.8	57.2	57.4	66.4	66.4	67.5	66.8	68.1	62.0	66.7	65.6	68.3	68.2	68.4	69.2	69.1	65.6		
	감비아	55.8	57.7	62.3	67.4	65.5	68.0	67.9	68.6	69.4	70.1	69.3	69.1	69.4	69.3	63.4	61.2	61.7		
	기니	55.8	57.4	54.9	57.0	58.2	57.8	57.3	57.1	61.3	63.1	59.7	60.7	60.5	64.1	60.7	58.1	60.1		
	코트디부아르	55.6																		
	기니비사우	55.3																		
	감보디아	55.2	51.1	49.4	50.2	55.1	56.4	53.0	51.9	46.3	54.6	57.1	56.6	55.6	54.7	53.2	55.4	55.9		
	이란	55.0	52.2	57.5	54.9	54.1	55.1	47.6	50.7	56.7	63.8	51.9	57.7	52.6	49.0	54.1	47.8	58.5		
	북한	54.8	54.8	56.1	60.4	59.9	56.0	55.4	60.1	54.9	54.9	52.3	54.8	53.6	53.8	59.1	53.5	58.0		
	에리트레아	54.6																		
	지부티	54.3																		
	시에라리온	54.0	54.4	55.0	58.5	57.7	60.8	61.4	62.4	61.4	55.3	60.4	60.4	59.9	60.5	60.0	54.7	49.3		
	우크라이나	53.5	53.4	56.5	68.2	75.3	74.7	75.3	75.0	74.8	68.5	70.9	72.3	67.3	65.7	62.9	62.4	69.2		
	케냐	53.5	53.6	54.9	56.7	58.1	58.8	64.3	65.0	61.8	59.7	62.0	64.5	64.2	69.4	66.0	65.8	61.4		
	말리	53.4	57.1	51.4	48.9	55.3	68.6	65.8	65.2	71.2	62.7	70.9	65.3	68.1	68.0	70.8	70.7	69.2		
	니제르	53.4	54.4	55.9	63.2	62.2	61.8	61.3	54.8	60.7	68.2	68.4	69.0	61.1	66.5	67.8	62.6	67.0		
	에티오피아	52.2	52.1	59.2	53.2	52.2	49.5	54.3	45.5	49.9	49.7	41.6	52.5	57.7	52.3	52.9	53.8	54.1		
	알제리	52.0	50.8	47.8	53.7	62.5	61.3	64.1	49.5	55.2	57.4	59.8	54.1	45.1	49.7	49.4	43.7	44.4		
	짐바브웨	51.4	49.2	49.8	46.5	56.5	56.3	54.7	60.8	54.4	48.2	55.0	56.0	47.0	49.5	63.5	56.6	51.6		
	모잠비크	51.2	51.6	53.6	54.6	58.0	60.9	58.2	59.1	61.4	58.3	60.9	61.6	61.9	59.5	58.1	58.3	57.4		
	이집트	51.1	51.0	54.8	56.0	65.5	61.6	61.6	61.0	55.6	63.9	49.8	53.8	56.4	59.3	56.4	59.7	55.2		
러시아	50.6	48.9	52.2	61.3	63.0	61.0	55.9	59.8	52.8	63.0	57.2	56.0	55.9	57.4	54.5	54.3	53.5			
미얀마	50.6	50.5	48.0	49.4	56.1	46.9	42.7	52.4	51.8	47.1	47.2	41.3	54.8	48.6	58.1	50.1	48.5			
레바논	50.5	50.4	49.6	58.8	60.0	59.7	57.0	58.6	58.5	54.4	51.7	54.1	53.4	50.6	59.2	59.6	57.5			
5등급 (매우 낮음)	콩고공화국	48.8																		
	앙골라	46.1	48.4	52.3	51.7	50.9	49.8	47.0	53.3	51.0	49.7	46.6	55.3	51.8	49.9	45.4	45.9	47.2		
	파키스탄	44.9	43.3	44.5	50.1	51.8	51.8	50.6	46.0	48.7	50.2	50.0	44.6	48.1	49.0	46.0	42.9	50.0		
	리비아	44.8	48.3	50.0	58.5	58.5	60.7	62.5	63.6	60.6	66.1	66.0	62.4	61.4	61.0	63.9	59.0	64.2		
	나이지리아	44.0	43.7	47.3	45.8	47.8	53.0	53.8	57.2	53.1	52.0	48.6	46.4	47.2	50.8	51.7	55.9	50.8		
	중앙아프리카공화국	43.7	42.7	37.2	44.6	46.2	57.2	52.0	61.5	62.9	62.3	51.0	61.9	50.9	48.6	53.8	56.0	63.0		
	이라크	42.1	41.4	39.9	42.8	47.5	42.0	31.8	40.5	34.7	39.2	42.5	35.0	30.1	28.0	49.4	49.3	38.9		
	차드	39.4	41.9	46.1	53.3	58.1	56.8	57.2	47.6	50.5	58.7	53.1	57.5	46.4	58.3	59.6	53.7	42.7		
	부룬디	39.0	36.5	41.8	48.4	54.0	53.2	48.3	56.9	51.3	57.8	53.6	53.3	45.0	48.8	49.2	53.1	48.9		
	우간다	38.1	38.2	39.3	54.2	51.2	55.0	49.2	50.9	44.7	49.6	49.5	52.3	46.1	49.0	50.2	58.2	58.7		
	시리아	33.9	29.4	30.4	33.5	42.0	46.8	54.6	56.5	51.3	53.3	50.0	59.8	43.2	49.6	45.9	53.9	56.9		
	예멘	32.6	34.1	37.9	48.4	44.0	41.4	44.4	43.9	45.5	56.7	55.3	57.4	48.5	46.3	47.6	55.8	58.2		
	콩고민주공화국	32.4	37.2	38.5	45.2	40.3	45.5	42.4	52.5	40.9	47.2	49.2	49.5	36.8	41.7	33.1	42.4	38.9		
	아프가니스탄	26.9																		
	소말리아	26.5																		
수단	20.5	22.4	22.3	37.5	39.0	37.8	54.8	51.3	36.2	47.6	48.0	45.0	38.0	50.8	46.6	39.9	42.6			
남수단	20.2	23.1	20.0	41.1	42.3	46.3														

<덴마크 1위, 남수단 최저 195위>

먼저, 1등급 국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등급은 덴마크, 독일 등 유럽국가와 캐나다, 그리고 호주, 일본, 대만 등 아시아·태평양 나라들을 비롯한 42국으로 구성된다. ‘세계평화지수 2017’에서는 덴마크가 평화지수 90.8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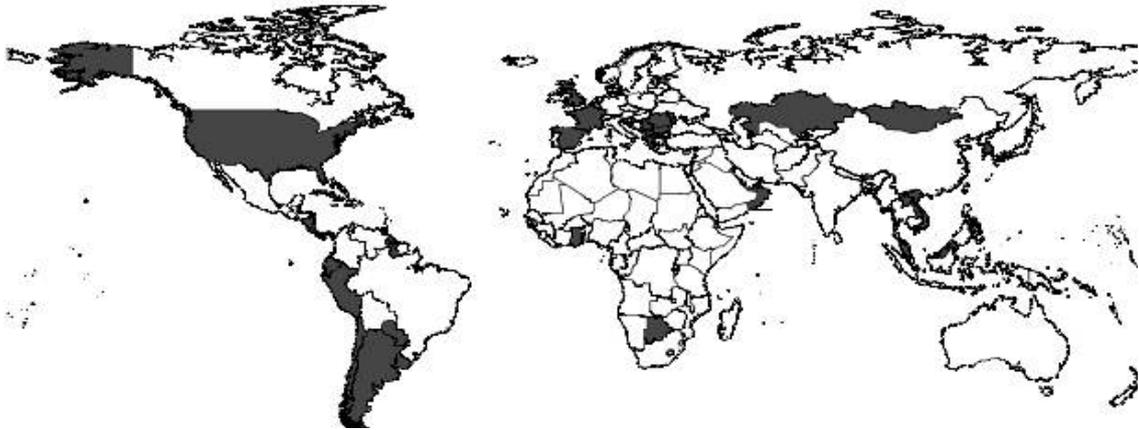


국가	WPI	국가	WPI
덴마크	90.8	일본	84.3
독일	89.9	헝가리	84.0
리히텐슈타인	89.9	슬로바키아	83.9
캐나다	89.2	벨기에	83.2
아일랜드	89.0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83.0
노르웨이	88.9	체코	82.9
뉴질랜드	88.7	세인트 키츠 네비스	82.4
오스트리아	88.5	세인트루시아	82.1
모나코	88.3	싱가포르	82.0
아이슬란드	88.3	이탈리아	82.0
룩셈부르크	88.1	팔라우	82.0
몰타	87.3	포르투갈	81.9
산마리노	87.2	모리셔스	81.7
안도라	87.1	리투아니아	81.3
핀란드	87.1	앤티가 바부다	80.6
스위스	86.2	마셜 제도	80.5
슬로베니아	86.0	도미니카 연방	80.5
스웨덴	85.8	바베이도스	80.3
폴란드	85.6	바하마	80.2
네덜란드	85.3	대만	80.2
오스트레일리아	84.6	라트비아	80.0

[그림 3] 평화수준 1등급 42국가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일이 89.9점으로 2위이다. 독일은 2013~2015년의 3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국가로 선정되었지만, 난민문제가 사회 이슈로 등장하면서 2016년도부터 2위가 되었다.

냉전시대가 해체된 1990년대 이후 유럽지역은 군사적 긴장이나 국내정치 위기가 줄어든 지역이었다. 유럽지역에서 평화수준을 결정하는 데 군사적 긴장이나 국내정치 대신 경제위기가 평화 수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독일은 통일직후 경제적 쇠퇴를 경험했지만, 최근에는 유럽에서 가장 건실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된다. 군사·외교 평화지수도 높지만, 사회·경제 평화수준을 높게 유지한 것이 독일이 세계평화지수에서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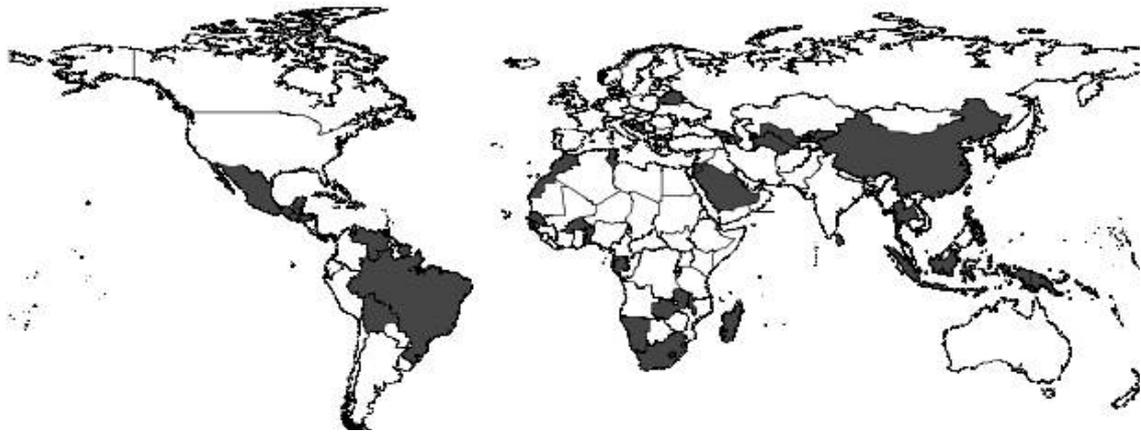


국가	WPI	국가	WPI
미크로네시아 연방	79.6	카자흐스탄	75.0
칠레	79.5	나우루	75.0
투발루	79.5	세르비아	74.6
키리바시	79.5	부탄	74.6
크로아티아	79.4	키프로스	74.6
바누아투	79.3	아르헨티나	74.1
그레나다	79.2	가이아나	73.6
코스타리카	78.5	피지	73.4
파나마	78.3	폴디브	73.2
우루과이	78.2	오만	73.1
사모아	78.2	에콰도르	72.6
루마니아	78.2	자메이카	72.1
통가	77.5	미국	72.0
영국	77.2	마케도니아	71.9
에스토니아	77.2	아랍에미리트	71.7
말레이시아	77.2	그리스	71.6
프랑스	77.0	베트남	71.5
몬테네그로	77.0	보츠와나	71.3
세이셸	76.9	라오스	71.1
스페인	76.6	몰도바	70.9
벨리즈	76.6	가나	70.9
카보베르데	76.6	페루	70.9
브루나이	76.6	니카라과	70.9
불가리아	76.5	쿠웨이트	70.8
몽골	76.4	파라과이	70.3
알바니아	76.0	트리니다드 토바고	70.2
카타르	75.9	쿠바	70.2
한국	75.3		

[그림 4] 평화수준 2등급 55국가

적으로 최상위를 차지한 핵심 원인이다.

2017년 새롭게 포함된 소국들을 제외하면 덴마크, 독일에 이어 캐나다, 아일랜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등이 2017년 세계평화지수 최상위 국가들이다. 이 나라들은 대체로 예년에도 세계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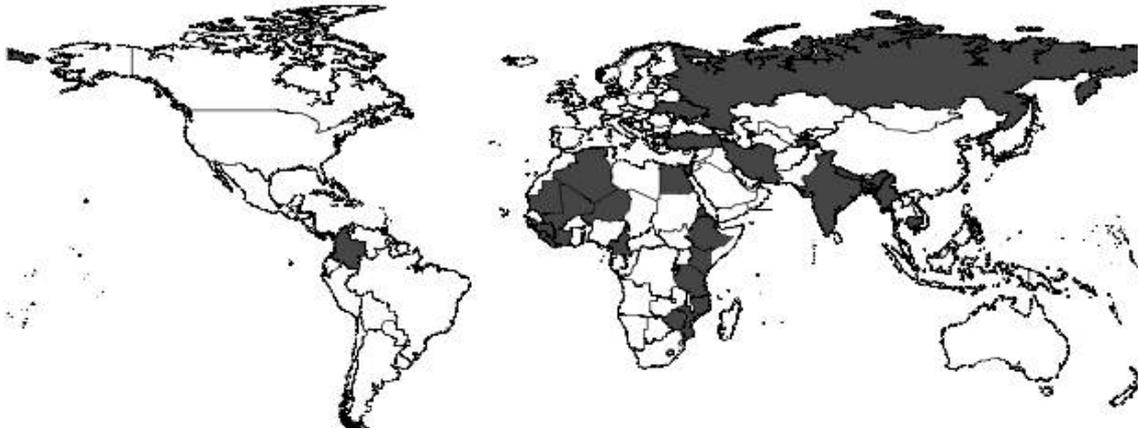


국가	WPI	국가	WPI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69.8	남아프리카공화국	66.3
나미비아	69.6	온두라스	66.2
멕시코	69.5	말라위	66.1
엘살바도르	69.3	가봉	66.0
세네갈	69.2	브라질	65.8
상투메 프린시페	69.2	적도 기니	65.6
볼리비아	69.0	솔로몬 제도	65.3
인도네시아	68.9	아르메니아	64.4
벨라루스	68.7	스리랑카	63.9
투르크메니스탄	68.5	베네수엘라	63.4
키르기스스탄	68.0	스와질란드	63.4
베냉	67.9	요르단	63.2
동티모르	67.9	우즈베키스탄	62.8
코모로	67.9	과테말라	62.2
토고	67.8	레소토	62.2
조지아	67.6	마다가스카르	62.1
모로코	67.4	아제르바이잔	62.0
튀니지	67.3	부르키나파소	61.9
수리남	67.1	필리핀	61.5
과푸아뉴기니	66.7	잠비아	61.4
태국	66.6	중국	61.2
도미니카공화국	66.5	바레인	61.0
사우디아라비아	66.5		

[그림 5] 평화수준 3등급 45국가

지수 상위국에 포함되었던 국가들이다. 세계평화지수 상위 10위권 내 국가 중 독일과 캐나다를 제외한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아일랜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모나코, 아이슬란드 등 8개국이 인구 1,000만 이하의 고소득 유럽 소국들이다. 그밖에 10위권에 있는 룩셈부르크, 몰타, 산마리노, 안도라, 핀란드, 스위스, 슬로베니아, 스웨덴도 이 범주에 속한다.

둘째, 2등급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 그리고 영국,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 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나라들을 포함하는 55나라로 구성된다.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으면서 국제 정치를 주도하는 미국과 그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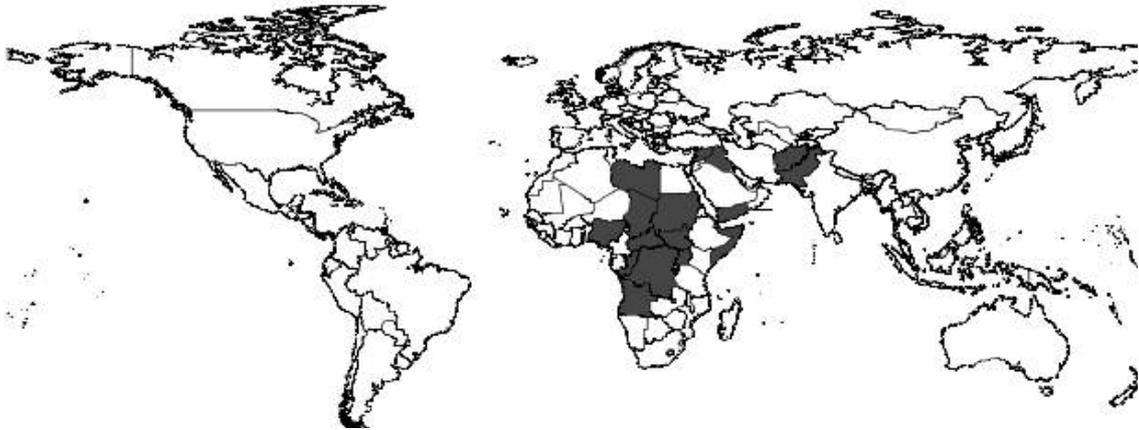
국가	WPI	국가	WPI
터키	59.4	캄보디아	55.2
르완다	59.2	이란	55.0
탄자니아	59.2	북한	54.8
콜롬비아	59.0	에리트레아	54.6
이스라엘	59.0	지부티	54.3
아이티	58.5	시에라리온	54.0
방글라데시	58.5	우크라이나	53.5
네팔	57.5	케냐	53.5
모리타니	57.2	말리	53.4
라이베리아	57.0	니제르	53.4
타지키스탄	56.7	에티오피아	52.2
인도	56.1	알제리	52.0
팔레스타인	55.8	짐바브웨	51.4
카메룬	55.8	모잠비크	51.2
감비아	55.8	이집트	51.1
기니	55.8	러시아	50.6
코트디부아르	55.6	미얀마	50.6
기니비사우	55.3	레바논	50.5

[그림 6] 평화수준 4등급 36국가

동맹국들이 2등급에 속해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단 상황에 처한 한국 역시 2등급에 포함되어 있는데, 북한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3등급은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나라들,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중동 국가들, 브라질, 베네수엘라, 멕시코 등 중남미 나라들,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부르키나파소 등 아프리카 나라들을 포함하는 45나라로 구성된다. 경제성장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개발도상국이 대부분이다.

넷째, 4등급은 러시아, 그리고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북한 등 아시아 나라들, 터키, 이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알제리, 이집트 등 중동 국가들, 케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라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나라들을 포함한 36나라로 구성된다. 이스라엘과 러시아를 제외한 4등급 나라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저개발국이다.



국가	WPI	국가	WPI
콩고공화국	48.8	우간다	38.1
앙골라	46.1	시리아	33.9
파키스탄	44.9	예멘	32.6
리비아	44.8	콩고민주공화국	32.4
나이지리아	44.0	아프가니스탄	26.9
중앙아프리카공화국	43.7	소말리아	26.5
이라크	42.1	수단	20.5
차드	39.4	남수단	20.2
부룬디	39.0		

[그림 7] 평화수준 5등급 17국가

마지막으로, 5등급은 남수단, 수단,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나라들과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이라크 등 중동 나라들을 포함하는 17개국으로 구성된다(그림 4-15 참조). 남수단은 세계평화지수 2017에서 평화지수 20.2점으로 가장 평화가 취약한 국가로 측정되었다. 남수단은 내전을 통해 수단으로부터 2011년 분리 독립한 이후 지속적으로 평화지수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 수단으로부터 분리 독립했지만 수단과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남수단의 평화수준이 매우 열악하고, 수단 역시 평화지수가 매우 낮다. 그리고 내전이 지속되는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등이 평화지수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그밖에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부룬디, 이라크, 리비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이 지속적으로 평화가 취약한 국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평화상태가 한번 크게 훼손되면 회복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이들 평화수준 최하위 국가는 주로 아랍 및 아프리카지역 국가로서 소득수준은 낮고,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인구는 2,000만 이상이 넘는 국가로 해당지역서 인구가 많은 국가에 속한다. 이는 빈국이면서 종족·종교가 복잡하게 구성된 국가는 평화 수준이 높아지기 어려움을 알려준다.

대체로 일정한 국가들이 상위국과 하위국에 포함되어 있다. 개별국가의 평화 수준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평화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 자생적으로 평화 수준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평화 수준이 낮은 국가의 경우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뿐 아니라 세계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국들이 이들 국가의 악화된 평화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대국의 평화역설: 미국 83위, 중국 141위, 러시아 176위, 인도 154위, 브라질 125위>

세계평화지수 1등급(상위국)과 5등급(하위국) 명단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각 대륙을 대표하는 주요국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 나라들의 평화 수준은 어떠한가?

미국은 ‘세계평화지수 2017’에서 72.0점으로 83위, 평화지수 2등급 국가에 포함되었다.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이 평화지수 면에서 상위집단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평화수준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국내정치평화 수준은 83.2점(67위), 군사·외교평화 수준은 60.9점(157위), 사회·경제 평화수준은 71.9점(69위)이다. 국내정치평화와 사회·경제평화는 중상위국에 속하지만, 군사·외교평화는 하위국권에 속한다. 미국이 세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도한다고 하지만, 국내정치적으로 인종 간 분쟁이 지속되고, 총기사고가 남발하며, 사회경제적으로는 중산층의 위축되고 하층이 늘어나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정치적으로나 사회경제 측면에서 세계평화를 이끌지는 못하고 있다. 평화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군사·외교 평화수준이다. 군사강국으로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 자체는 군사·외교적으로 평화 수준이 악화되고 있다. 미국이 세계평화 증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정치 갈등을 줄이고, 사회·경제평화를 증진시키면서, 국제적으로는 군사 개입과 동시에 외교 평화적인 방안으로 국제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세계평화지수 2017’에서 평화지수 61.2점으로 평화지수 3등급에 해당하며, 순위는 141위이다. 미국과 더불어 G2로 불리고,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발전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있지만, 평화면에서 중국은 중간 이하 국가로 분류된다. 중국의 평화순위를 영역별로 보면, 국내정치평화 수준은 60.0점(145위), 군사·외교평화 수준 60.1점(159위), 사회·경제 평화수준은 63.4점(103위)이다. 국내정치 면에서는 인권보장 수준이 열악하고, 소수민족 갈등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군사·외교적으로는 주변국과 영토 및 영해분쟁이 심화되면서 군사·외교 평화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경제적

으로 중국은 규모 면에서는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빈부격차가 커서 사회·경제평화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평화지수 2017’에서 평화지수 50.6점으로 평화지수 4등급에 해당하며, 순위는 176위이다. 러시아는 평화지수 하위국에 속한다. 국내정치평화 수준 35.8점(180위), 군사·외교평화 수준 58.0(166위), 사회·경제 평화수준은 58.0점(123위)이다. 강력한 러시아를 표방하는 푸틴이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부정선거 시비가 남아 있는 등 국내 정치는 여전히 불안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며, 크림 반도를 둘러싸고 우크라이나와 영토분쟁을 야기하고, 시리아 내전에 깊숙이 관여하는 등 군사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군사·외교 평화수준도 매우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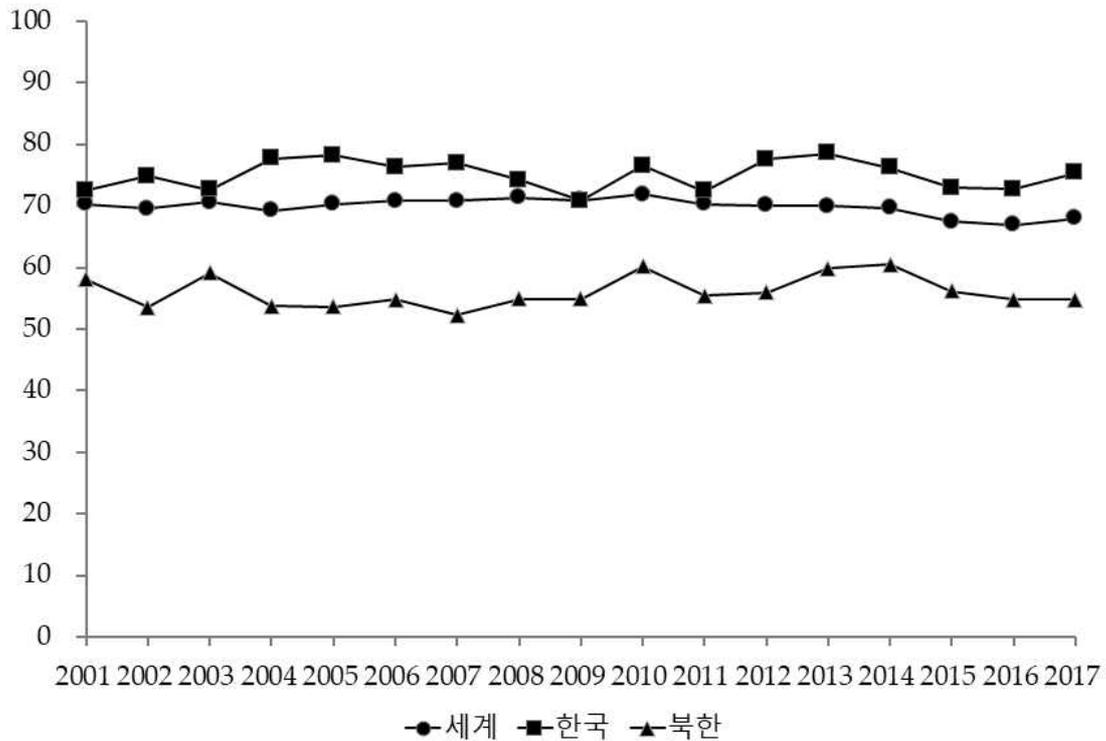
인도는 ‘세계평화지수 2017’에서 56.1점으로 평화지수 4등급에 속하며, 순위는 154위이다. 인도 역시 평화지수 하위국에 속한다. 국내정치평화 수준 64.4점(137위), 군사·외교평화 수준 61.1점(155위), 사회·경제 평화수준은 46.7점(164위)이다. 평화지수를 구성하는 세 영역 중 중위국 수준에 속하는 국내정치평화 부문을 제외하고, 군사·외교평화 및 사회·경제 평화수준 모두 하위국에 속한다. 많은 인구나 극심한 빈부격차,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과 인도 내부 무슬림 분리주의자에 의한 테러 등이 인도의 평화수준을 낮추고 있다.

브라질은 ‘세계평화지수 2017’에서 평화지수 65.8로 평화지수 3등급에 속하며 순위는 125위로 평화지수 중위국에 속한다. 국내정치평화 수준 67.1점(126위), 군사·외교평화 수준 79.9점(54위), 사회·경제 평화수준 50.5점(144위)로 평화지수를 구성하는 세 영역 중에서, 군사·외교평화는 중상위국 수준이지만, 사회·경제 평화수준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 브라질이 세계평화순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사회·경제 평화수준 개선에 노력해야할 것이다.

유럽의 평화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만, 유럽 강대국 중에서 평화지수 1등급인 독일(2위)과 이탈리아(31위)를 제외하면, 영국(56위), 프랑스(59위), 스페인(62위) 등은 평화지수 2등급에 속한다. 이들 나라가 유럽 중심국이기는 하지만, 평화수준에서 세계를 선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남북한 평화 수준 격차: 한국 70위, 북한 163위>

‘세계평화지수 2017’에서 한국은 평화지수 75.3으로 평화지수 2등급에 속하며 순위는 70위이다. 영역별로는 국내정치평화 수준 87.5점(46위), 군사·외교평화 수준 55.8점(173위), 사회·경제 평화수준은 82.6점(22위)이다. 사회경제평화수준은 높은 편이고, 국내정치평화수준도 수준급이다. 특히 정치적으로 박근혜정부에 대한 비판이 촛불시위로 확산되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로 귀결되었지만, 평화시위가 유지되고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아 오



[그림 8] 한국과 북한의 평화지수 2001~2017년

히려 정치적으로 성숙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득격차 확대와 청년실업문제 악화 등으로 사회경제부문도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 등으로 남북관계는 보다 악화되었다. 한국의 평화 수준을 높이려면, 군사·외교 평화 부문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북한의 ‘세계평화지수 2017’ 점수는 54.8점으로 평화지수 4등급 163위이다. 영역별로는 국내정치평화 수준 70.5점(115위), 군사·외교평화 수준은 42.7점(190위), 사회·경제 평화수준 51.3점(142위)이다. 인권침해현상이 극심함에도 북한의 국내정치평화 수준이 크게 낮지 않은 것은 외부로 드러난 정치적 갈등이 없기 때문이다.

남북한을 비교하면 정치와 사회·경제 평화수준에서 남북한 간 격차가 매우 크다. 또한 북한 역시 군사·외교평화 수준이 낮은 것이 평화지수 순위를 떨어뜨리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남북한을 포함하여 한반도 평화 수준을 높이려면, 군사·외교평화 수준을 증진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망됨을 알 수 있다.

※ 참고: 세계평화지수 작성 방법

모든 세부 지표들은 평화가 훼손될수록 높은 점수를 나타내도록 측정된 후 0점(평화)부터 1점(비평화)의 값을 갖도록 표준화하였다. 표준화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지표에 절대적 최소값과 최대값이 존재하는 경우, 그것을 0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변환한 다음 최대값으로 나누어, 분포가 0에서 1의 값을 갖게 조정하였다. 둘째,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등의 지표는 ‘분포상의 상위 95% 값’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값을 동일하게 재부호화하여 이상점(outliers)을 제거한 다음, 그 값으로 나누어 0부터 1 사이에 값이 분포하도록 변환하였다.

그 후 개별 지표의 측정치의 방향을 바꾸었다. 지금까지 계산한 지표는 ‘평화’가 아니라 ‘갈등’을 측정된 것이므로 그 방향을 바꾸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이 세부변수들의 값은 비평화 상태일수록 값이 커지는 속성을 갖고 있으므로, 평화문화지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방향을 바꾸어야 개념적으로 정확하다. 각 개별 지표가 0점(평화)부터 1점(비평화)까지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1에서 기존 지표의 값을 빼는 방식으로 값을 변환하였다. 그 후 각 지표에 100을 곱하여 0점(비평화)부터 100점(평화)의 값을 갖도록 조정하였다. 즉, A<sub>1</sub>~A<sub>3</sub>, B<sub>1</sub>~B<sub>3</sub>, C<sub>1</sub>~C<sub>3</sub>의 모든 지수는 0점(가장 비평화적인 상태)부터 100점(가장 평화로운 상태)의 범위를 가진다. 그 후 각각의 부분지표를 산술평균하여 세계평화지수를 작성하였다.

<표 2> 세계평화지수의 세 가지 하위개념과 그 측정 지표

A 정치	B 군사·외교	C 사회·경제
A <sub>1</sub> 역사적 국내정치 갈등 A <sub>11</sub> 내전 A <sub>12</sub> 쿠데타와 정치적 폭동	B <sub>1</sub> 역사적 국가 간 갈등 B <sub>11</sub> 전쟁 경험 B <sub>12</sub> 식민지 경험 B <sub>13</sub> 지정학적 조건	C <sub>1</sub> 안전과 안정 C <sub>11</sub> 생태적·사회적 안전 C <sub>12</sub> 사회·경제적 안정
A <sub>2</sub> 민주주의와 국가역량 A <sub>21</sub> 민주화 정도 A <sub>22</sub> 인권 보장 수준 A <sub>23</sub> 정치적 투명성	B <sub>2</sub> 군사화 정도 B <sub>21</sub> 군사비 B <sub>22</sub> 병력수 B <sub>23</sub> 대량살상무기의 소유·실험 관련 국제협약 가입 건수	C <sub>2</sub>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 C <sub>21</sub> 빈곤 C <sub>22</sub> 사회적 불평등
A <sub>3</sub> 현재 국내정치 갈등 A <sub>31</sub> 내전 A <sub>32</sub> 쿠데타와 정치적 폭동 A <sub>33</sub>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	B <sub>3</sub> 현재 국제정치 갈등 B <sub>31</sub> 전면 전쟁 B <sub>32</sub> 전투 또는 국제분쟁 B <sub>33</sub>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	C <sub>3</sub> 삶의 질 C <sub>31</sub> 삶의 질 수준

## 『세계평화지수 2017』 발간사

『세계평화지수 2017』 발행은 세계평화포럼으로서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2001년 처음 세계평화지수를 발표한지 17년 만에 전 세계의 작은 나라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195개국으로 확대하였다. 2001~2010년의 76개국에서 2011년 142개국으로, 다시 6년만에 195개국으로 늘려, 사실상 전 세계를 커버하였다.

이런 의욕적인 목표에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출(Brexit), 미국의 대통령 선거, 선진국에서의 격렬한 좌우 급진주의와 포퓰리즘, 중국과 러시아의 민족주의 독재 강화, 선후진국을 관통하는 소득 양극화, 이민 종교 인종 문제 둘러싼 테러와 내전, 초저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세기적 그리고 세계적 금융조작 등 정치·경제·사회·안보 전 분야에 걸쳐 대반동(great reaction), 대분열(great disruption)이 일어나면서 그 문제 소화에 매달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2016년 세계평화지수’ 발표를 미루고, ‘2017년 세계평화지수’와 함께 작업을 진행하였다. 세계평화포럼으로서는 가장 확대된, 어쩌면 더 이상 대상 나라 수를 확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상의 진화를 완료한 『세계평화지수 2017』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세계평화지수는 통상 연말에 발표하였으나, 포괄하는 나라 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연구팀의 작업시간이 더 필요해져서, 해를 넘겨 2018년 초에 발간하게 되었다.

2016년의 데이터에 기초한 『세계평화지수 2017』을 발표함에 따라, 북한의 잇따른 핵과 장거리미사일 실험으로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군사적 충돌 긴장이 가장 고조되고 있는 2017년의 한반도 상황을 내년 『세계평화지수 2018』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 매우 안타깝다. 『세계평화지수 2018』은 남북한, 중국, 일본 미국의 당사자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평화수준이 『세계평화지수 2017』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진단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세계평화지수 2017』에서는 대상 국가가 195개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국의 평화수준을 평가하여 다섯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평화지수 점수 80점 이상은 1등급, 70점대를 2등급, 60점대는 3등급, 50점대는 4등급, 50점 미만은 5등급으로 나누는 설명 구조를 채택했다. 2017년 전 세계 평화지수 점수는 평균 68점으로 2015~2016년 지수보다 다소 개선된 듯 보이나, 2017 지수에 새로 포함된, 국외 사정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52개 나라의 평화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파악하면, 2015~2016년보다 그 사정이 나빠졌다 할 것이다.

2017년 세계평화지수를 통해서도 세계평화의 양극화, 즉 ‘항상적 평화상위국가들’과 ‘항상적 평화 하위국가들’의 상존이 여전한함을 알 수 있다. ① 인구가 적고, ② 종교, 언어, 종족이 단일하거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③ 교육, 소득, 복지 수준이 높고,

④ 주변지역이 안정적이며, ⑤ 민주정치가 정착된 나라들은 평화지수가 높은 ‘평화상위국가’ 집단을 지속적으로 형성한다. 그 반대의 경우, 즉 지역적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중동지역은 ‘항상적 평화하위국가’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이제 『세계평화지수 2017』 이후 주목해야 할 상황은, 이 평화의 양극화 구조는 변화가 없으나 ‘평화상위국가’ 집단의 지수 구성요소들이 급격히 나빠지는 현상이 현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정치 동요와 포퓰리즘, 소득 교육의 양극화, 이민 수용을 둘러싼 국제·국내 정치 경제 사회적 마찰, 국제협조주의 쇠퇴와, 트럼프, 시진핑, 푸틴, 에르도안, 두테르테 등 스트롱맨 증가, 자국이익 제일주의, Brexit와 EU내의 분화, 유럽에서의 끊임없는 대량살상테러, 미국의 TPP와 NAFTA 탈퇴 의지와 전 세계적 자유무역 전진의 모멘텀 후퇴 등이 겹쳐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중국, 러시아, 북한과 미국, 일본, 유럽의 신냉전 전개 양상도 일어나고 있다. 아마도 항상적 평화상위국들의 평화조건 악화가 후진국들의 환경 악화, 원조 감소, 관심 감소 등으로 ‘항상적 평화상위국가들’의 평화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지난 『세계평화지수 2015』 발간사에서 환경문제의 보다 실질적 지수 반영과, 프란시스코 교황이 말씀하신 ‘정의의 평화’의 지수화 고민을 밝힌 바 있다. 파리기후협약이 역사적으로 출발한 지 1년도 안되어, 이를 주도했던 미국이 탈퇴를 선언하고, 선진국의 포퓰리즘이 보편화되면서, 지구적 차원의 기후 온난화, 환경문제 접근은 더욱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와 기존 화석연료 간의 에너지 믹스에서 화석연료 또는 원자력 쪽으로 후퇴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세계평화지수에는 예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지구촌의 평화 구조를 공고화하는 방향으로의 전진을 막는 요인이 된다. 특히 ‘항상적 평화하위국가들’ 집단에게는 더욱 빠르게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세계평화포럼은, 매년 지수 상의 변화 추이로 쉽게 관찰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동 요인과 현재보다 미래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요인들을 어떻게 ‘세계평화지수’ 산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새로운 과제로 떠안게 되었다. 세계평화지수에 부가하여, 위험지수(risk index)를 추가로 산출하고, 매년 단위 지수와 함께 5년 또는 10년 단위의 지수에 의한 사후 또는 예측 보정 등의 방법을 연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001년 9.11테러,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16년 트럼프 등장과 Brexit, 2017년 제2 마오쩌둥 시진핑 등장, 북한의 핵·ICBM 구축 등 지난 17년의 추세로만 보아도 21세기의 큰 추세는 평화의 대 후퇴기, 즉 20세기 같은 대 전쟁은 없으나 큰 테러와 큰 내전(內戰)이 끊임없이 전개되어 평화갈증이 높아지는 시기로 접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지구촌 인구감소가 시작되는 2040~2050년까지는 장기 평화후퇴 시기가 전개될 것이다.

이 세기적 대반동, 대분열, 대후퇴의 역설은, 결국 세계평화는 지구촌 생명들의 마

음과 정치, 경제, 사회제도와 기구들의 지구촌적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정착되고 작동되어야만 유지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 1국주의, 지역이기주의, 과학기술과 경제우선을 넘는 이성과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지구촌 공동 관리 시대가 가능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 자문하고 그 길 찾기에 분발해야 하는 때이다. 세계 평화의 제전인 '2018년 동계 올림픽'을 개막하는 날 이 보고서 편집을 마치며, 전 세계 국가와 시민들의 세계평화 수준의 향상을 기원한다.

2018년 2월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김진현

## ■ 세계평화포럼 연구위원회

연구책임자: 설동훈 (전북대학교 교수, 사회학) dhseol@chonbuk.ac.kr  
연구위원: 김병조 (국방대학교 교수, 안보정책학) bjkk2181@daum.net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국제정치학) leesh65@gmail.com  
고재훈 (전북대학교 강사, 사회학) jh.ko@jbnu.ac.kr  
연구원: 이태훈 (전북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사회학) taixun@naver.com  
유승환 (전북대학교 박사과정, 사회학) ysh9671@naver.com  
연구조원: 김형준 (전북대학교, 사회학) 임지혜 (전북대학교, 사회학)  
강성구 (전북대학교, 사회학) 엄승범 (전북대학교, 사회학)  
고유미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 김형철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  
인선영 (전북대학교, 사회학) 안형준 (전북대학교, 사회학)  
이민경 (전북대학교, 사회학) 김성민 (전북대학교, 법학)

## ■ 세계평화포럼 이사회

이사장: 김진현 (전 과학기술부 장관, 전 서울시립대 총장) jinhkim36@naver.com  
이사: 김여수 (경희대 평화대학원 교수, 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 전 외교부장관)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총재, 이화여대 석좌교수)  
이부영 (전 국회의원)  
이해찬 (국회의원, 전 국무총리)  
정몽준 (전 국회의원)

## 세계평화지수 2017 보도자료

인 체: 2018년 2월 9일  
발 행: 2018년 2월 9일  
지 은 이: 설동훈 · 김병조 · 이상현 · 고재훈  
발 행 인: 김진현  
발 행 처: 세계평화포럼  
연락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한국나  
노기술원 4층 (주)파크시스템스 ☎ 16229  
이.메일: worldpeaceindex@gmail.com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worldpeaceindex.org>  
전화: (031) 546-6804 팩스: (031) 546-6805  
인 체 처: 도서출판 프린트킹  
전화: (031) 889-4451 팩스: (031) 889-4452  
저 작 권: © 세계평화포럼 2018.